

圖書館·情報學教育의 共通核心領域에 관한 研究

宋 始 宣*

〈目 次〉

- | | |
|--|--|
| I. 序 論 | 2. 情報學의 發達과 그 教育의 擴散形態 |
| 1. 研究의 目的 및 意義 | 3. 情報學教育의 核心領域 |
| 2. 研究의 範圍 | 4. 1970년대 中葉의 圖書館學校와 核心教育領域 |
| 3. 研究의 限界 | IV. 圖書館·情報學教育의 共通核心領域에 대한 深索(1970년대 中葉이후~) |
| II. 初創期 圖書館教育과 核心領域 | 1.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紐帶關係 |
| 1. 技術偏重時代(Dewey~1940년대) | 2. 共通核心領域의 探索 |
| 2. 社會認識論의 登場(1950년대) | 3. 國際機構(Unesco, IFLA)의 努力 |
| III. 圖書館學 및 情報學教育의 躍動期(1960년대~1970년대 中葉) | V. 結 論 |
| 1. 社會環境變化와 圖書館學校 |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및 意義

모든 專門教育은 核當專門職의 目的과 要求에 최대한 符合되도록 계획되어 져야 하며, 이들 專門職이 追求하는 根本 目的은 時代나 場所에 관계없이 일 정한 '普遍性'의 原理를 가지는 까닭에 專門教育 또한 상당한 水準의 國際의 으로 共通된, 즉 一般화된 性格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각 국가의 文化, 經濟 및 技術上의 差異에 따라 生命에 대한 醫師의 信念과 職業觀에 어떠한 相異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共通된 醫學과 醫術을 사용하고 있듯이, 圖書館을 비롯한 諸般 情報專門職도

*韓社實業專門大學 圖書館學科 專講

2. 도서관학논집

그들 職業의 目的에 있어서나, 그 求現方法이 되는 理論과 技術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一般性'을 나누고 있음을 意味한다. 물론, 각 專門職이 가지는 古有特性에 따라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專門職이 가지는 이 一般性的 領域이야 달로 그 專門職을 위한 學問(理論 및 技術)의 基底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한편 위와 같은 論理에 根據하여, 각종 專門教育프로그램은 각 국가의 經濟 및 技術의 發達水準의 差異나 文化的 背景의 相異에 구애없이 상당한 部門에 걸쳐 國際적으로 標化化되어 실시되고 있다.

專門教育의 標準化는 크게 教育의 內的 要素와 外的 要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教育의 內的 要素로는 教育의 目標 및 그 內容(교과과정), 教授의 資格, 教授方法 등이 있고, 外的 要素로는 大學校에서의 所屬學科(academic affiliation), 學位水準, 入學資格, 統率權, 敗政⁽¹⁾ 등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要素들의 실제적인 統一이 그 專門職 및 專門教育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性格을 갖추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다.

이 一般性的 要素들은 法學이나 醫學과 같은 專門教育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으나 圖書館·情報學教育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 專門職의 性格自體가 다른 專門職에 비교해, 보다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으로 각 特定社會의 性格에 依持하며, 그 결과, 이들 專門職은 그 社會環境과 상호적으로 影響力을 끼치는 紐帶關係를 가진다는 特性이 이 一般性的 成就에 큰 沮害要因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要因은 어느 정도 이들 專門職에 있어서 不可避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筆者가 本研究를 통해 연고자 하는 一般性的 영역은 모든 專門教育이 그러하듯, 圖書館 및 諸般 情報專門職이 가지는 共通된(一般化된) 基本 學問的 要素에 한정된 探究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십여년전, Shera 는 “圖書館學은 아직 모든 司書와 情報

(1) Saracevic, Tefko. "An Essay on the Past and Future(?) of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II,"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15 No.3, 1979. p.291.

學者들이 그들 각자의 專攻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必하여야 하는 共通的으로 一般화된 學問을 生成할 만큼 충분히 成熟되지 않은 段階”(2)라고 陳述했는데, 오늘날 과연, 圖書館學 및 情報學이 어느 정도 이 段階에서부터 진보되어 왔는가를 觀察, 分析함이 本研究의 主要 目的이다.

특히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學的 體係인 概念과 原理의 構築은 물론, 이들 專門職사이의 和合과 그 教育機關의 統合도, 보다 說得力있는 이들 學問間의 共通된 ‘核心’(基礎)領域의 糾明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本研究의 意義는 더욱 뜻 깊은 것이다.

2. 研究의 範圍

本研究는 英美를 中心으로 圖書館·情報學教育的 發達歷史속에서 ‘核心’領域과 그 概念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가를 教科課程의 必須教科目을 통해 그 時代的 變化推移를 分析했다.

Dewey 時代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圖書館·情報學教育者들이 ‘核心’ 혹은 ‘共通核心’領域의 糾明에 접근해 온 樣相과 그들 理論의 背景에 대한 論文과, 그밖에 이들 教育 및 訓練에 있어서의 世界的 水準의 標準化 및 發展途上國의 圖書館·情報學教育的 案內指針의 役割을 주 目的으로 한 Unesco 와 IFLA 의 共通核心教科課程勸告案이 紹介되었다.

3. 研究의 限界

本研究는 既存核心領域에 대한 史的考察이 教科名稱을 위주로 分析된 관계로 名稱안의 실라브스(教授要目)의 相異, 漏落, 重複에 대한 統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2) Shera, S.H.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2, 1968. p.64.

II. 初創期圖書館學教育과 核心概念

1. 技術偏重時代(Dewey—1940년대)

圖書館學專門教育의 歷史에 있어서 核心領域에 대한 概念은 1885년이래 英國圖書館協會의 資格試驗構造를 비롯하여, 최초의 大學校教育모델의 實現이 있던 Dewey의 1887년 圖書館經營學校(The School of Library Economy)의 教科課程에서 뚜렷한 輪廓을 드러내고 있다.

必須試驗科目 혹은 必須教科目を 통해서 나타난 이 核心概念은 圖書館學教育의 初創期에서부터 專門人協會와 學校의 全般的인 認定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當時 Dewey의 圖書館經營學校는 大學校 모델이라는 外形과는 달리 圖書館學의 研究 및 開發보다는 실제 圖書館環境의 適應에 重點을 둔 實務技術教育에 더 가까웠다. 그 結果 Dewey 教科課程의 核心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實務操作中心의 構造的 性格을 띠고 있다.

- (1) 書誌的 側面: 資料選擇, 參考奉仕
- (2) 技術的 側面: 分類, 目錄
- (3) 行政的 側面: 圖書館運營, 貸出 等
- (4) 機關 및 歷史的 側面: 圖書 및 印刷史, 館種別圖書館⁽³⁾

이 Dewey의 核心概念은 圖書館學教育이 최초로 大學校環境으로 도약한 일대 革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徒弟制度下에서 치루어지고 있었던 英國圖書館協會(Library Association, 이하 LA로 稱함)의 試驗科目構造와 그 內容과 接近方式에 있어서 별다른 差異를 보이지 않았다.

이우렵 LA가 要求하고 있던 6個의 試驗科目은 ‘實際圖書館運營’, ‘實習

(3) Saracevic, T. "A Model of Knowledge Communication as a Unifying Framework for Education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Reports and Bibliographies*. Vol. 7 No. 4-5, 1978 p.27.

書誌', '分類', '目錄', '圖書館史 및 圖書館組織'의에 '英文學史'로 구성되어 科目마다 따로 合格시켜, 時間에 구애없이 마지막으로 6科目을 전부 合格하는 때에 資格을 부여 했다.⁽⁴⁾ 이러한 試驗體系는 圖書館專門職을 위한 眞正한 教育이라기보다는 訓練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위의 실라브스는 1933년 새로운 試驗體系가 導入되기 전까지 專門職資格의 基準役割을 했다.

한편 LA는 이때부터 60여년 간 '英文學史'를 必須試驗科目으로 要求했었는데, 이러한 背景이 바로 外部人에게는 물론이고 圖書館職入門者들에게 까지 圖書館學을 人文學으로 誤謬케 하는 主要 根源이 되었으며, 오늘날 世界的으로 圖書館專門職에 文學主題背景을 가진 자가 많은 理由를 部分的으로 說明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새삼 核心領域에 대한 誤謬가 전체 圖書館學 및 그 專門職의 健康한 發展에 얼마나 큰 汨害要因으로 作用했던가를 歷史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1923년에 發表된 Williamson 報告書는 圖書館學教育史上에 일대 轉換點을 제공한 課業으로 오늘날 評價받고 있다. 이 報告書는 당시 美國內 圖書館學校와 그들 教育의 거의 모든 缺點을 들추어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方向에 대한 勸告案을 提示했는데, 여기서 그는 圖書館學教育의 核心領域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을 明示하지는 않았으나, 核心概念의 適合性과 이 領域에 대한 必須教育의 必要性을 전폭적으로 支持했다.

Williamson의 主張은 圖書館學教育은 2年으로 確保되어야 하며 그 중 첫 1년은 學生 個個人이 意圖하는 特殊專攻選擇에 관계없이 圖書館學의 基本的 主題들로 짜여진 一般프로그램으로 改正되어야 한다⁽⁵⁾는 것인데, 現在 筆者가 아는 바로는 美國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의 圖書館·情報學校가 그 좋은 實例중 하나이다.⁽⁶⁾

(4) Bramley, G. *A History of Library of Library Education*. London: Bingley, 1969. p.24.
 (5) Williamson, Charles C.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N.Y.: Carnegie Corporation, 1923.
 Shera, J.H.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Y.: Becker and Hayes, 1972. p.238에서 재인용.
 (6) UCLA 敎科課程(1980-81년 Bulletin 參考)은 1年 3學期制의 2年 코스로 총 18科目의 履修를 要求하고 있는데 이중 그 반에 해당하는 9科目이 必須(core)科目이며 첫 1년간은 한 學期당 3科目씩 이 核心領域을 공통 受講하게 하고 있다.

1940년대 말경 美國內 圖書館學校에서 重點的으로 提供되어진 教科目은 다음과 같다.

(1) 全體的인 必須科目: 參考奉仕, 書誌, 分類 및 目錄, 資料選擇

(2) 全體的은 아니나 一般的인 必須科目: 圖書館運營, 圖書 및 圖書館史⁽⁷⁾

이즈음 美國圖書館學教育界는 圖書館職의 業務上의 相異는 대부분 그 適用 次元에서 發生하는 것이지 圖書館學의 本質에서 起因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諸般 圖書館專門職에는 一般性(unity)라고 할 수 없다면 同質性(homogeneity)의 要素가 存在한다는 데에 意見を 모았다. 그리고 이 同質性에 대한 보다 일치된 概念을 獲得하기 위해서 圖書館學教育의 分析, 評價 및 이들의 綜合이 必要하다⁽⁸⁾는 점이 指摘되었다.

이와 같은 一般性에 대한 認識의 成長은 바로 圖書館專門職의 社會的 役割의 增加와 이에 따른 圖書館學의 成熟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했다.

2. 社會認識論의 登場(1950년대)

1950年代의 圖書館學教育은 Chicago 大學校를 先頭로 하여 學問의 最高水準을 認定하는 博士學位를 提供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地位를 키워왔다.

실제 圖書館學博士科程이 세워진 것은 일찍이 1891년 Dewey 時節부터 이나, 1953년까지 圖書館學科 學生이 Columbia 大學校에서 博士學位를 수여받은 記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⁹⁾

이에 反해 Chicago 大學校는 1926년 圖書館學校(大學院)의 創立과 함께, 圖書館學의 博士學位에 대한 適否의 뜨거운 論難을 무릅쓰고, 博士를 輩出하여⁽¹⁰⁾ 그야말로 圖書館學의 學問向上에 Dewey 를 뒤이은 開拓者의 役割을

(7) Reed, S.R.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today: a Historical Overview," *I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 Design of the Curricula of Library Schools*, edited by H. Goldhor.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70. p.27.

(8) Ibid., p.26.

(9) Trautman, Ray A *History of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 Columbia University*.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pp. 29, 65. Shera, J.H. Op. cit., 1972. p.398에서 재 인용.

(10) Ibid., p.398.

擔當하게 되었다. 이 Chicago의 博士過程은 그후 1930년대에 이르러 제대로 整備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는 여러 圖書館學校에로 博士過程이 擴張되어 상당히 普遍化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즈음 다시 圖書館學教育者들은 圖書館學의 核心領域과 이에 따른 必須教科課程의 概念自體가 과연 계속 生存, 成長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熟議를 가질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Chicago 大學校 圖書館學校는 1953년 '圖書館學教育의 核心'(The Core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이란 저 有名한 題目의 워크-숍을 主管했는데, 이 會議의 參席者들은 다소 用語使用上의 差異는 있었으나 모두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 核心概念의 妥當性을 재차 確認하고,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 圖書館學研究 및 哲學概念을 核心教育領域에 添附하였다. 여기서 합의된 核心領域은 一定한 教科目 名稱으로서가 아닌 小主題別로 採擇되었으며 이에 대한 教育을 위해 各 圖書館學校가 그들의 教科課程을 어떻게 構成하고 命名하는 가는 自律에 맡겼다. 이 會議가 모든 學生들에게 반드시 教授되어야 한다고 決定한 小主題(토픽)는 다음과 같다.

- (1) 圖書館, 社會, 그리고 이 兩者의 相互紐帶關係에 관한 研究
- (2) 專門性의 意味와 性格
- (3) 圖書, 資料 및 資料源에 대한 解釋, 理解, 評價, 選擇, 그리고 利用
- (4) 奉仕對象者(利用者)에 關聯된 館外 및 館內奉仕의 組織과 性格
- (5) 圖書館組織 및 經營의 基本原則과 多様な 型
- (6) 歷史를 걸쳐, 그리고 오늘날 現在, 커뮤니케이션過程이 가지는 性格과 技能에 관한 概論
- (7) 研究調查(research)의 技能, 方法論 및 研究調查結果의 利用法에 관한 概論⁽¹¹⁾

1950년대 圖書館學教育의 뚜렷한 特徵은 이제까지의 圖書館內部에서 發生

(11) *The Core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A Report of a Workshop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Graduate Library School of Chicago, August 10-15, 1953.* Chicag: ALA, 1953. Reed, S. R. Op. cit., p.28에서 재인용.

하는 業務習得中心的 思考에서 탈피하여 점차 그 照明方向을 圖書館組織밖으로 비추어 圖書館의 社會的 役割과 그 重要性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때에 所謂 社會認識論的(Social Epistemological) 接近이 圖書館과 社會와의 關係를 밝히기 위한 手段으로 Shera와 Egan에 의해 試圖되기도 했다. 한편, 이 接近方法이 現代社會의 수많은 複雜性과 직접적으로 連結되고, 그 包括領域 또한 너무 廣範圍해서 비록 구체적인 效果를 거두지는 못했으나⁽¹²⁾ 圖書館學의 原理體系화과 그 教育에 있어서 중요한 局面을 새롭게 認知시킨 意義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問題에 대한 理論的으로는 물론 應用面에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發見이 重要課題로 남아 있다.

이밖에 圖書館學教育이 이 時期에 이룩한 또 하나의 革新은 그다지 本體的인 知識은 아니나 圖書館學研究 및 開發의 한 方法으로 「서베이」가 새로운 核心領域으로 登場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圖書館學의 教育界 및 專門人들에 의해 이루어진 「서베이」研究는 어떠한 原理나 法則도 抽出하지 못한 단순한 統計數字의 羅列에 불과한 卒作이었다고 現代의 圖書館學 및 情報學者들의 酷評을 받고도 있으나 이처럼 研究方法論이 圖書館學의 研究 및 開發을 위한 技法으로 도입됐다는 自體는 역시 圖書館學教育의 일대 跳躍임에 分明했다. 實際로, 이 「서베이」方法은 그 構成이 論理的인 演繹的 推理로 꾸며지는 條件下이면 앞으로 圖書館·情報學의 새로운 原理發見에 큰 도움을 줄 潛在力을 충분히 所持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情報學의 감작스런 擡頭를 비롯, 미디어 및 컴퓨터工學의 보다 강력한 浸潤現象에 의해 다스나마 安定된 이 Chicago 決定案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現在社會의 급격한 變化도 또 다른 變數因子로서 圖書館學과 그 教育의 內容을 壓迫해 왔다.

(12) Saracevic, T. Op. cit., 1978. pp.28—29.

Ⅲ. 圖書館學 및 情報學教育의 躍動期(1960년대~1970년대중엽)

1. 社會環境變化와 圖書館學校

圖書館學과 關係 專門職은 이 時期에 걸쳐 특히 圖書館의 外部環境에 의해 많은 變化를 체험하게 되었다. 한때, 圖書館學의 存在를 위협한다고까지 關心을 모은 情報學의 急速度의 成長과 頭角이 이때에 일어났고 메스미디어와 컴퓨터工學을 위시한 諸般 通信工學의 發展은 社會組織의 그 어느 곳보다 圖書館 및 기타 情報率仕業體에 거대한 變化를 불러 왔다. 그리고 이들의 影響力은 앞으로도 계속 增大될 趨勢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變化는 圖書館 및 諸般 情報業體의 內部狀況(資料와 人間의 效率의인 組織 및 運營에 적용되는 諸 理論 및 技術)에서 뿐만아니라 外部環境(社會)의 要求와 利用樣相에서도 뚜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專門職環境의 變化로 인해, 專門教育의 變化, 즉 教科課程의 改正이 불가피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既存核心教科의 상당한 部門이 그 有効性を 否定받게 되었다.

사실상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圖書館學教育의 核心領域은 公共圖書館運營에 편과된 概念이었으므로, 大學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에는 그나마 약간의 相關이 있었지만, 文獻學이나 情報學과는 거의 關聯이 없었다. 실제, 이전까지 強調되어온 '核心'은 兒童司書나 中高等學校 司書에게 그 價値가 미심쩍은 것 이었다.⁽¹³⁾ 그 결과 계속적으로 變貌하는 社會環境과 그 要求에 密着되지 못한 既存核心領域은 學生은 물론이고 教授들에 이르기까지 그 適合性의 與否에 대한 懷疑가 擴散되어 갔다.

(13) Shera, J.H. "Review of Asheim. Core of Educatio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15 (July 1954), pp. 348-52. Goldstein, Harold. "How Articulate is our Articul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4 (Spring 1964), pp. 218-30. Shera, J.H. op. cit., p. 367에서 재인용.

이로써 해묵은 規律이 무너진 것은 分明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어떤 統一된 하나의 解決策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게 보였다. 이러한 ‘核心’에 대한 多樣的 異見을 調整할 바로미터의 缺如는 진실로 심각한 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의 北美 대부분의 圖書館學校는 地域的 혹은 國家的 次元의 어떠한 留意도 없이 獨自의으로 判斷된 教科課程을 開發하여 實施했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은 教科課程改正에 대한 적절한 理由의 發表는 물론이고, 그후 改正모델의 實施經驗에 대한 顛末 및 圖書館學校 自體內 評價의 結果조차 공개되지 않은채, 계속적으로 再改正되어 나갔다.

2. 情報學의 發達과 그 教育의 擴散形態

먼저, 情報學이 發生된 세 主要方面을 살펴보면, 이들은 相互關聯性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엄밀하게는 研究 및 開發觀點의 次元과 強調分野가 조금씩 相異함을 알 수 있다.

(1) 專門職(應用 및 實際의) 方面: 情報시스템, 奉仕와 情報網, 情報利用者와 利用 等に 關心을 가진다.

(2) 技術工學 方面: 情報取扱을 위한 情報工學의 應用에 關心을 가진다.

(3) 科學(基礎) 方面: 커뮤니케이션과 情報, 情報시스템, 그리고 시스템內의 프로세스에 관한 理論과 實驗에 關心을 가진다.⁽¹⁴⁾

情報學의 이와 같은 3次元的 性格은 情報學教育이 大學內에서 징확히 어느 곳에 位置해야 하는가를 決定하는데 큰 問題點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은 주로 圖書館의 主題專門家에게 情報業務에 필요한 技術習得을 위해 短期訓練코스로서 提供되어졌던 情報學教育의 初創期보다 情報學이 급격한 成長을 이루며 大學의 正規教育으로 擴散되어간 1960년대를 起點으로 매우 심각하게 擡頭하게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圖書館學校를 비롯,

(14) Saracevic, T. "An essay on -I"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15, No. 1, 1979. p. 3.

실로 수많은 大學 學科에서 情報學코스 및 프로그램이 提供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相異한 學問環境은 自然히 多樣한 解釋으로 表現된 情報學教育을 낳았다.

오늘날 情報學코스가 提供되고 있는 學科로는 圖書館學校⁽¹⁵⁾가 으뜸으로 많고, 컴퓨터學科가 둘째를 차지한다. 그외에도, 經營 및 비지니스學校는 經營 시스템을 重點으로, 매스미디어, 新聞學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學校는 情報理論을 重點으로, 그리고 化學, 醫學, 工學과 같은 學校(혹은 學科)에서는 刻當主題의 情報取扱을 重點으로 한 情報學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實驗的 段階에 있으나, 同一 大學校內에서 情報學이 제공되고 있는 學科(주로, 圖書館學校)와 外部 學科가 함께 特定主題分野의 情報奉仕에 目的을 둔 合同情報奉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즉, 藥學科와의 協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藥品情報프로그램(Drug Information Program)이나, 社會事業學科와의 地域社會 및 都市情報프로그램(Community and/or Urban Information Program)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극히 少數의 경우에 있어서만 情報學이 獨立學科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이들 學科는 시스템分析과 디자인, 技術工學의 應用 및 情報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工學的 側面을 위주로 하고 있다.⁽¹⁶⁾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情報學을 위한 教育이 獨立學科보다는 여러 多樣한 學科(혹은 學校)내에서 盛行하고 있음은 情報學이 아직 學問으로서의 發達初期에 있다⁽¹⁷⁾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英國은 1967년 the City University가 1년과정의 情報學碩士코스를 처음으로 創設했고, 그 다음해는 Sheffield 大學校가 뒤 따랐다.⁽¹⁸⁾ 이들은

(15) 여기서 學校란 schools의 直譯으로 學科(department) 보다 큰 單位도, 일종의 독립된 大學院을 의미한다.

(16) Soergel, D. (Criaiperson), "Programs in Information Studies outside Library Schools," *In Proceedings of ASIS*, Vol. 15, 1978. Mishelevich, D. J., pp. 229-232. Slamecka, V., pp. 314-317. Sprowls, C., pp. 318-321. Williams, J. G., pp. 353-357. Saracevic, T. Op. cit., pp. 293-4에서 재인용.

(17) Harmon, Glynn,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Training," *I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1. Washington D.C.: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976. p. 363.

(18) Simpson, I. S.,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1. The U.K.," *Journal of Informa-*

모두 圖書館學校內에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英國은 1970년대까지도 美國처럼 大學校教育이 普遍化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傳統的 圖書館學教育과 같이 情報學教育은 1950년대 무렵부터 주로 英國專門圖書館協會(Aslib)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여기서 Aslib는 19C 말이래 英國圖書館協會가 國家的 規模로 施行하고 있던 것과 같은 資格試驗制度—그들 會員中 몇몇은 원했지만—를 세우지 않았다. 물론 그 理由는 그와 같은 制度를 세우는 費用과 複雜性的 問題도 있었으나, 情報學領域에 대한 實際的인 試驗科目을 糾明하는 어려움의 問題點이 다분히 작용했다. 그 결과 Aslib는 그들의 教育活動을 情報業務의 專門家를 위한 短期코스를 提供하는 것으로 制限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코스에 다니는 대부분의 會員은 司書들이었다.⁽¹⁸⁾

3. 情報學教育의 核心領域

1970년대는 특히 情報學이 활발하게 專門領域의 理論과 實際應用分野를 開發시켜 나간 時期다. 이때의 情報學은 그 學問的 本質과 特性을 究명하고자 하는 努力과 함께 現實的으로는 情報學을 위한 教育, 그 중에서도 教科課程의 構成에 대해 진지한 關心을 갖게 되었다.

情報學을 最善으로 ‘教育’시킬 수 있는 教科課程에 대한 여러 見解 및 主張은 한마디로 말해서 情報學이 여러 多樣한 學科에서 教育되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다양했다.

Jack Belzer 등은 1968년과 1972년의 教科課程比較研究를 통해 美國情報學教育의 4년간의 發展傾向을 觀察했는데, 이 研究는 1972년 當時 美國內 다양한 水準의 情報學教育(學士, 碩士, 博士課程)에서 重點的으로 다루어지는 一般 集合領域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tion Science. Vol. 1, April 1979. p.51.

(19) Fosketle, D.J.,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the Question of a Core Curriculum," Documentaliste, Vol. 11, No 1, March 1974. p.11

- (1) 情報學基礎: 情報理論, 커뮤니케이션, 科學史, 言語學과 情報處理, 檢索戰略, 社會的 側面, 等.
- (2) 知識의 組織理論: 抄錄, 索引, 拔萃, 分類, 目錄, 內容分析, 書誌統整.
- (3) 計算理論: 情報構造, 아라비아記數法, 可算性, 連續의 넷트, 스위칭理論, 等.
- (4) 컴퓨터方法: 컴퓨터, 運營시스템, 콤파일러, 機械言語, 多目的프로그래밍, 컴퓨터利用性, 파일組織, 等.
- (5) 데이터處理: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收集方法, 데이터處理設備, 記錄메디아, 다이얼-업(Dial-up)接近, 電線커뮤니케이션, 넷트-웍, 等.
- (6) 圖書館시스템自動化: 圖書館自動化的 計劃 記置 및 適用, 貸出시스템, 定期刊行物自動化, MARC 시스템, 機械目錄, 等.
- (7) 圖書館經營: 圖書館 및 情報網, 圖書館機能, 圖書館標準, 經營目標, 圖書館의 未來, 圖書館協會, 等.
- (8) 시스템評價: 評價方法論, 情報檢索시스템評價, 效果分析, 運營研究(OR) 및 情報시스템, 시스템디자인, 시스템分析, 意思決定過程, 等.
- (9) 行動的 側面: 心理學, 人間情報프로세싱, 概念의 形成, 思考, 피드백 및 統率.
- (10) 統計學: 研究方法論, 科學的 方法, 實驗의 디자인, 統計決果의 解釋, 統計意思決定理論, 要因分析, 變化分析, 假定테스트, 샘플링, 統計的 分析, 等.
- (11) 數學: 數學的 論理, 計算法, 代數學, 線型프로그래밍, 非線型프로그래밍, 다이나믹-프로그래밍, 位相數學, 셋트(Set)理論, 그래프(Graph)理論, 等.⁽²⁰⁾

그러나, 이 研究는 情報學教育이 대체적으로 어떤 敎科를 다루는가를 把握

(20) Belzer, Jack, Williams, J. etc., "Curricula in Information Science: Four Year Progress Report," *Jnl. of Am. Soc. Inf Sci.*, Vol. 26, Jan 1975, pp. 23-25

한 점으로는 成果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周邊學問들이 獨立된 學問으로서의 情報學의 根本을 構築하는데 어떠한 論理的 聯關性으로 綜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었다.

情報學教育의 本然의 目的은 궁극적으로 넷지지의 傳承, 蓄積, 組織, 構造, 濾過 및 流通現象에 관한 根本的인 研究探索任務를 수행할 人才를 教育하는 것⁽²¹⁾이라고 主張한 Taylor는 위의 教育目的을 求現하기 위한 核心領域을 다음과 같은 5가지 側面으로 提是하고 이의 教育과 研究를 촉구했다.

1) 시스템 : 情報시스템 研究는 人間, 機械, 넷지지의 效果的인 配置에 대한 公式的 分析과 디자인에 重點的으로 關與하며, 시스템의 主要 技能을 넷지지의 流通으로 꼽는다. 이 領域은 情報流通체인내의 要素 및 過程을 分析하기 위한 모델의 開發과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다.

2) 環境 : 情報의 生態學 및 環境에 관한 研究, 知識과 情報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들의 文化, 社會, 歷史的 環境을 重點的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情報 및 커뮤니케이션 環境研究에 적절한 構造와, 그와 같은 研究로부터 나온 데이터와 觀察을 시스템디자인에 有用하는 方法을 開發한다.

3) 미디어 : 情報미디어 研究는 메시지型 및 內在的 組織에 關與한다. 커뮤니케이션시스템에서 미디어의 影響과 役割—정보의 組織, 濾過, 利用—에 대한 研究를 內容으로 한다.

4) 組織 : 19C 중엽 이래 圖書館學, 文獻學, 情報學은 情報의 組織에 關心을 모아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情報의 組織은 教授法상으로는, 實驗상으로는 組織을 特定環境, 다양한 미디어 및 多樣한 水準의 技術工學發達에 連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시스템의 制約點들이 傳統的 分類 및 索引方法에 어떻게 影響을 끼치는 가에 대한 보다 細

(21) Taylor, R.S. "A Structure for Change in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Field. In *Processings of the 38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23—26 1972.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1973. p.152.

密한 研究가 要請되고, 過去의 分類 및 索引의 라벨 붙이기나, 名名過程을 再解析함으로써 이들은 情報探索과 情報利用의 自然過程(natural process)에 보다 밀접하게 連結될 수 있도록 한다. 情報組織의 役割에 대한 評價基準은 情報의 홍수로부터 우리 보호하는 方法, 즉 濾過器와 풍부한 視覺的 '象' 聽覺的 '音' 을 組織하는 統合方法에 달려 있다.

5) 人間 對 시스템의 相互接觸: 위에서 討議된 全體情報環境의 社會속에서 시스템과 個人利用者의 相互接觸範圍를 研究한다. 어떻게 하면 個個人의 情報行爲에 대한 진실한 거울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디자인(혹은 參考司書의 경우는 訓練)될 수 있는가를 研究한다. 이 領域의 關心은 外形의 機械나 型의 改鑄에만 限定하지는 않는다. 이 領域은 利用者와 記錄資料사이의 無限하게 纖細하고도 私的인 紐帶關係에 關與하고 있는 것으로, 基本的 問題는 人間의 認識學習과 情報프로세스를 그 接近側面과 提示된 metis에 關係해서 組合하는 것에 있다.⁽²²⁾

結論的으로, Taylor의 主張은 어떠한 特定學校나 프로그램도 위와 같이 다양한 範圍를 모두 깊이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이지만 이 領域構造는 全水準의 學生들에게 보다 넓은 基礎—概念的이고도 實際的인—을 제공하는 教科課程의 編性에 利用될 수 있다⁽²³⁾는 것이다.

한편, Saracevic은 情報學을 위한 教育構造를 Taylor와는 또 다른 次元으로 接近했다. 그는 情報學教育은 다음과 같은 4개의 領域으로 分類해서 教育되어야 最上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 1) 基礎概念領域: 圖書館學原論, 情報學概論
- 2) 理論, 方法領域: 研究調查概論, 數字方法學, 分類, 情報檢索理論, 言語 및 情報學, 複合시스템의 問題點.
- 3) 情報시스템領域: 情報檢索시스템, 特殊情報센터 및 奉仕, 特殊圖書館,

(22) Ibid., pp. 149—152.

(23) Ibid., p. 147.

(24) Saracevic, Tefko.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Development,"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31, May 1977. p. 137.

情報시스템.

4) 應用領域: ㉠ 自動化, ㉡ 經營 및 디자인, ㉢ 研究調查, ㉣ 教育, ㉤ 開發⁽²⁴⁾

이와 같이 情報學의 核心教育要素는 科目合稱상의 制限的 모델보다는 보다 大概念인 領域상의 用語로 표현된 開放的 모델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領域안의 구체적인 細部 教授要目を 각 國家의 社會, 文化, 教育 및 技術工學環境에 따라 調節할 수 있다는 長點이 감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情報學의 包括領域이 너무 廣大하고, 또한 公認된 科目名稱을 가질 만큼 學問이 體系가 잡히지 않은 점이 저지않게 作用했다고 할 수 있다.

4. 1970년대 중엽의 圖書館學校와 核心教育領域

圖書館學校內에서의 情報學教育은 이즈음 比較的 普通化되어 있었고,⁽²⁵⁾ 따로 情報學코스(情報學碩士科程)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圖書館學코스의 教科課程속에 情報學 教科目數가 부쩍 增加되는 趨勢을 보였다.

이는 곧 圖書館學이 情報學의 理論과 技術을 필요로 하는 範圍가 擴張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現實은 自然히 過去의 圖書館學을 위한 既存 核心教育領域의 變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核心領域은 그 教科目的 名稱에서 뿐만 아니라 內容에 있어서도 상당한 變化를 겪게 되었는데 당시 여러 圖書館學校는 Michigan 大學校처럼 傳統의인 核心概念을 고집하여 거의 過去의 그대로인 곳도 있는가 하면, Case Western Reserve 大學校처럼 核心領域의 教育方法을 과거 科目別 教育에서 완전히 바꾸어 全體的으로 專攻選擇전에 基礎코스로서 合同講議하는 등 그 內容에서나 接近方式에서 실로 다채로웠다.

1974년 Garrison 은 美國內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認可를 받은 圖書館學校들이 어떠한 態度로 核心概念에 接近하고 있는지에 관

(25) 실제로, 이 무렵에 많은 圖書館學校가 그 名稱을 圖書館·情報學校(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tudies)로 改名했다.

한 研究調查를 통해 다음과 같은 5個의 型으로 要約했는데 紙面관계상 一例씩만 소개하면서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²⁶⁾

1. 傳統的 核心科目과 類似한 型 : Michigan 大學校는 ‘目錄과 分類’, ‘圖書館藏書集成’, ‘一般參考資料’, 3科目의에 人文科學書誌/社會科學書誌/科學書誌中的 擇一을 必須科目으로 定하고 있어, 그 內容은 물론이고, 敎科課目的의 名稱에도 保守的인 態度를 지키고 있다.

2. 科目名稱 및 強調가 變形된 型 : Albany 뉴욕州立大學校는 ‘圖書館과 情報센터組織’, ‘情報處理’, ‘書誌學概論’, ‘參考過程’, 4科目이 必須로 要求되고 있다, 情報學的 側面이 核心領域에 名稱상으로 들어서고 強調되려고 한 痕跡이 뚜렷하다.

3. 基礎/프로-세미나 型 : 본래 Shera 博士에 의해 創案된 이 ‘基礎’ 개념은 Columbia 大學校가 1973년에, 必須敎科를 21學點에서 9學點으로 삭감하는데 利用했다. Columbia 大學校의 核心은 ‘圖書館과 情報奉仕의 基礎’(6학점)와 ‘主題書誌의 根本’(3학점)으로서, 前者는 (1) 커뮤니케이션과 現代社會, (2) 情報接近, (3) 커뮤니케이션過程내의 미디어센터, (4) 미디어 利用增進, (5) 圖書館專門職의 토픽들로 구성되었다. 보다는 이 基礎코스는 圖書館學教育歷史上 가장 뚜렷했던 核心인 分類, 目錄이 밖으로 밀려난 理論爲 主의 接近이었다.

4. 統合 講義-型 : Drexel 大學校는 1970년이래로 ‘圖書館·情報學的 根本’이란 하나의 科目밑에 以前의 核心科目 ‘社會와 圖書館’, ‘圖書館資料選擇’, ‘基礎參考’, ‘基礎目錄’ 및 ‘分類’의에 ‘圖書館運營’과 ‘情報學概論’을 새로이 追加하여 統合하였다. 이 型은 그 內容에 있어서 보다는 敎授法—즉 核心領域을 한 科目으로 統合시켜, 여러 명의 講師가 함께 그 科目을 擔當했음—에 있어서 接近이 특이었다.

5. 核心을 最小化한 型 : Berkeley 大學校의 경우는 書誌實習을 동반한 ‘書

(26) Garrison, Guy, "Change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ore," *Drexel Library Quarterly*. Vol. 10, July 1974. pp.5-9.

誌學概論', 한 科目에 의해 겨우 核心概念이 그 命脈을 유지하고 있다.

Ⅶ. 圖書館·情報學教育의 共通核心領域에 대한 研究

1.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紐帶關係

오늘날 圖書館學과 情報學이 그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 상당한 部門에 걸쳐 共通性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反論을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초창기 情報學의 擡頭시 우려되었던 傳統的 司書와 情報專門家들 사이의 不安한 反目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共通의 目的과 利害關係를 함께 하고 있음을 그 동안의 對話와 研究를 통해 확신하게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解消되고 있는 趨勢이다.

初創期 情報學者들의 상당수는 그들 業務의 대부분이 司書가 전통적으로 奉仕해 온 業務와 關聯이 없다는 理由를 들어 그들 專門職이 圖書館學과 分別되기를 고집했다. 여기에는 司書職이 社會에서 高級專門職으로 認識을 얻지 못한 데에도 큰 原因이 있다.

情報學(Information Science)은 圖書館學(Library Science)이 그 專門職을 圖書館科學者(library scientist)로 展開할 수 없었던 限界를 벗어나 情報科學者(information scientist)라는 '科學者'의 名稱에 強調할 두고 社會로부터 새롭게 영향력있는 專門職으로 評價받기를 원했다. 반면에 司書들 또한 그들의 學問에서 派生된 이 새로운 實力者가 그들 職種에 미치는 影響력에 위협을 느껴 敵對視하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은 오랫동안 이 두 相鄰學問의 專門職界 및 教育界사이에 커뮤니케이션 通路를 不在케 한 主要 原因이기도 했다.

그러나 명백히 圖書館 및 諸般 情報處理機關의 專門職은 가장 基本的 側面에서 共通性을 띠고 있다. 즉, 그것은 이들은 다같이 '資料와 利用者'의 媒介體役割을 하고, '記錄資料의 組織'이 主要業務이며, '圖書 및 情報奉仕運

營을 위한 機關'이라는 점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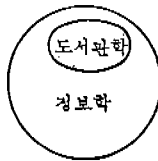
더욱이 오늘날의 社會가 生活全分野에 걸쳐 技術工學의 發達범위를 넓혀 감에 따라 70년대 이전까지 그나마 두렷했던 傳統的 圖書館職과 情報職사이의 作業環境差異도 점차로 그 間隔을 좁혀 나가고 있어, 이들 사이의 境界分離가 애매해지고 있다. 그 좋은 例로, 오늘날 많은 선진국의 경우, 작은 마을의 公共圖書館까지도 貸出返納業務정도는 거의 自動化되어 있어, 資料의 自動處理에 관한 研究 및 開發은 情報學領域이라고 보아온 과거의 思考方式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圖書館學校에서 圖書館自動化를 司晝에게 必須教育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分明히 남아있는 問題는 이들 紐帶關係의 組合部門 및 論理展開에 대한 심각한 見解差異로, 오늘날 많은 圖書館學 및 情報學者들의 觀心속에서 계속적으로 探究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紐帶關係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見意은 크게 3가지의 그림으로 圖解할 수 있다(참고: 여기서 圖表 및 集合部分의 크기는 어떠한 意味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有意바람).

(圖 1)



(圖 2)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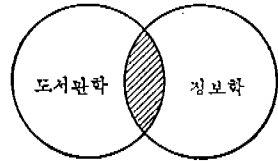


圖 1은 주로 Swank⁽²⁸⁾를 비롯한 圖書館學者들 측에서 主張하는 理論이고, 圖 2는 극단적인 情報學者들이 主張하는 理論이다. 반면에, 오늘날 特殊情報 專門機關에서 적용되고 있는 몇몇 現實이 圖書館에서 쓰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圖書館史, 娛樂 및 教養知識의 奉仕 등은 情報學에서 그다지 필요치

(27) Swank, R. C.,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Special Libraries*, Vol. 59, Jan. 1968, pp. 40-44. 崔成斌, "圖書館學科·情報學: 그 境界區劃을 다룬 문헌에 대한 考察", 圖書館學報, Vol. 2 1973, 6頁, 199에서 재인용

(28) Ibid., p. 199.

않다는 理由를 들어 共通領域의 所持와는 별도로 相互間에 獨立學問領域을 가지는 圖 3을 支持하는 者들도 많다.

궁극적으로 이 問題點의 難疑性은 그 어느 누구도 情報學이나 圖書館學의 完전한 定義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이들 學問은 아직도 進化하고 있는 主題인 까닭에 이들 사이의 紐帶關係는 계속적으로 變化하는 流動狀態에 있다⁽²⁹⁾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分明하게 認識하고 있는 점은 이 두 相鄰學問이 相當한 部門理論과 實技에 걸쳐 一般性を 나누고 있으며, 따라서 그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의 先行理論 및 研究結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로의 存在가 敵이 아니라, 자기 專門職의 開發 및 學問確立에 相互적으로 補助役割을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自覺은 圖書館學과 情報學이란 두개의 2等分을 서로 끌어당기는 人力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이들의 專門職界는 물론 專門教育界사에서 활발한 共同研究와 對話의 터전을 넓혀나가는 基盤이 되고 있다.

2. '共通核心' 領域의 探究

圖書館學 및 情報學教育者들은 위와 같은 現象을 그들 教育內域에 反映하여 보다 合理的이고 効果적인 教育構造를 基礎하고자 하는 苦心은 크게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一般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들의 統合化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로 要約된다.

일찍이 1950년대 초기에 英國에서는 英國圖書館協會와 英國專門圖書館協會가 협동해서 兩協會의 會員들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통실라브스'를 얻고자 여러 차례의 共同會晤를 가졌으나 이 試圖는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³⁰⁾

(29) Harvard-Williams, P. and Franz, E.G. *Planning Information Manpower: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Planning of National Documentation, Library and Archives Infrastructures Paris 23-27 September 1974* (COM. 74/ NATIS/Ref.5), Paris: Unesco, 1974. p.4

(30) Foskette, D.J. op.cit., p.13

根本적으로 司書와 情報學者는 主題에 대한 權威者가 아니라 主題文獻에 대한 權威者이다. 따라서 專門教育의 業務는 特定主題 그 自體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그 主題의 文獻시스템의 構造를 가르키는 것을 意味한다. 바로 이 要素 하나를 인정하는 것이 共通核心教科課程에 동의하는데 있어서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除去해 준다⁽³¹⁾는 觀點에서 착안된 共通領域探索이 Shera와 Foskett 등과 같은 大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Shera는 Taylor의 核心모델을 개발시켜 情報學 및 情報工學이 圖書館學과 상호 影響을 미치는 5領域을 다음과 같이 提示했다.

1) 시스템分析: 圖書館, 圖書館의 部署들, 혹은 圖書館綱과 같은 큰 組織體의 研究에 있어서 그 모델의 디자인과, 開發, 그밖에 시뮬레이션技術에 關與한다.

2) 環境: 圖書館이 運營되고 있는 社會의 內域에 關한 研究, 知識의 社會의 프로세싱, 知識 및 技術開發社會와 그 水準의 다양한 形態 등에 關與한다.

3) 情報채널: 知識이 傳達되고 受信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미디어. 이는 圖書나 資料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 혹은 情報센터 자체를 포함해서 어떠한 형태의 中間媒體든 모두 포함된다.

4) 書誌의 組織 및 分析: 情報를 經營하고, 라벨을 붙이고, 分類하는 過程. 이것은 言語學者, 論理學者, 心理學者, 數學者들의 先行課業에 더욱 의지하여야 한다.

5) 人間對 시스템 相互對面: 利用者와 그가 이용하는 書誌奉仕 혹은 書誌裝置사이에서 발생하는 相互作用, 그와 같은 '道具'는 參考司書, 카드目錄, 索引, 컴퓨터, 심지어는 冊 등으로 人間일수도 機械일 수도 있다.⁽³²⁾

한편 Foskett는 앞으로의 圖書館·情報學教育은 理在 教育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實技細部事項을 줄여서, 보다 學求의 教育이 되어야 한다고 主

(31) Ibid., p.13.

(32) Shera, J.H. Op. cit., 1968. p.65.

張했다. 그는 그러한 教育이야 말로 司書와 情報學者들의 專門職을 統合하는 機會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業務가 人類에게 순수하고도 귀중한 寄與를 하는 것이라는 絶頂感과 靈感을 우리들의 젊은 同僚들에게 심어주는 教育이 될 것⁽³³⁾이라고 믿었다.

Foskette가 제시한 圖書館·情報學의 核心領域은 그의 이러한 信念을 잘 反映한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6部門으로 構成되어 있다.

- 1) 知識世界：知識의 形態, 諸 主題들의 構造 및 그들간의 相互紐帶關係
- 2) 研究調查와 出版：研究調查過程의 本質, 研究結果를 의사소통하는 公式 및 非公式시스템, 一次 및 二次級의 文書, 報告書, 抄錄, 索引 等.
- 3) 收書와 排列：文書源 및 이들의 獲得方法, 分類 및 目錄, 情報蓄積 및 檢索.
- 4) 配布와 意思疏通：情報表現(提示)方法, 利用者 및 利用者群의 心理와 社會學.
- 5) 計劃과 經營：시스템分析, 科學的 經營을 위하 統計를 비롯한 여러 테크닉.
- 6) 扶術工學과 設備：諸般 種類의 하아드 웨어, 컴퓨터 및 技術工學의 利用法과 이와 같은 設備利用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範圍內에서의 基礎論理學 및 數學⁽³⁴⁾

3. 國際機關 및 專門團體의 努力

圖書館·情報學教育의 共通核心領域에 대한 探索은 1970년대 중엽을 후로 하여, 여러 관심있는 個人 學者들의 研究의에 UNESCO와 IFLA 같은 國際 專門人團體에 의해 활발히 研究되고, 또 勸告案이 提示되고 있어 注目을 끈다.

이들이 '共通核心'領域을 糾明하고, 또한 實用的 次元에서의 이의 構造—

(33) Foskette, D. J. Op. cit., p. 14

(34) Ibid., p. 14.

表 1. 정보학, 도서관학, 문서학의 핵심 교과과정

종류 \ 영역	정 보 학	도 서 관 학	문 서 학
기초영역 (Mansory)	정보사회학 과학사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론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법 도서관및도서관교육사 이용자 연구 연구방법론	경제사 법률사 사회사 계보학,문장학(敍章學) 연구방법론
자료영역 (Material)	다양한 형태의 자료 : 연구리포트, 도큐멘테이터(아이 디어), 정보봉사	다양한 형태의 자료 : 책, 정간물, 참고자료, 서지도구, 서적 예술사	다양한 형태의 자료 : 필사본, 지도, 서한 등록부, 재산(상품) 목록, 등 서지도구
방법영역 (Method)	색인, 내용분석 정보용어, 축적 및 검색시스템 자료조직 정보배포 시스템분석	색인, 내용분석 독자봉사 자료조직 참고절차 보존 및 복원 시스템분석	등록시스템 고문서학 박물관기술 기록물경영 도서관기술 보존 및 복원
경영영역 (Manage- ment)	경영 및 운영 인사 시스템조직 및 계획 법적측면	경영 및 운영 인사 시스템조직 및 계획 법적측면 도서관종별도서관운영	경영 및 운영 인사 시스템조직 및 계획 법적측면 문서보관종별운영
기계영역 (Mechaniza- tion)	컴퓨터 및 복사공학	컴퓨터 및 복사공학	컴퓨터 및 복사공학
인간영역 (Men)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

表 2. UNESCO : 도서관·정보학 교과과정

<p>1. 人間の 커뮤니케이션 : 基礎 코스</p> <p>(1) 이론면 : 정보전달과정 : 도서관·정보학의 특성</p> <p>(2) 실무면</p> <p>2. 이용자 研究</p> <p>(1) 이용자 행동과 이용자 이용 : 일반적 환경</p>

(2) 이용자 행동과 이용자 이용 : 전문연구, 특정환경

(3) 이용자 조사의 수법 : 정량적 코스

3. 情報源(도큐멘타리, 시청각, 컴퓨터 베이스)

(1) 일반적 조사

(2) 참고, 서지정보원

(3) 과학기술, 사회과학, 인문과학(정보원의 정보연구)

실습

메뉴얼 탐색,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탐색

4. 情報/데이터의 축적과 검색

(1) 목록, 분류, 색인의 이론

(2) 컴퓨터 이용법

(3) 시스템 설계 : 비교연구와 평가

실습

목록, 분류작업, 분석합성식 분류의 작성, 시소터스 작성, 소록작업, 기초 컴퓨터 프로그램

5. 組織

1. 경영원리와 거슬

2. 시스템 환경과 목찰

3. 각종 도서관(국립, 대학, 공공, 전문, 학교)과 전문센터

4. 시스템 조작

5. 복제

6. 기계화, 자동화

7. 정량적 수법

6. 특수연구 혹은 학위論文

연구수법

教科課程 및 教授要目一를 언고자 하는 주요 目的은 圖書館 및 諸般 情報專門職을 위한 教育에 있어서 세계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次元에서의 標準化 및 一般化의 實現과, 나아가서는 이들 專門職 및 그 教育의 中극적인 統合에 있다. 그밖에 제3세계의 圖書館·情報學教育에 基本的 基準을 제공하는 案內指針의 役割이 기대되고 있다.

1974년 Uneso의 情報機構, NATIS (National Information System) 프

로그림은 國家도큐멘테이션 圖書館 및 文書館組織의 計劃을 위한 世界會議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NATIS 프로그램은 각 국가, 특히 제3세계가 指針으로 사용할 수 있는 圖書館學, 情報學 및 文書學의 共通核心教科課程構造⁽³⁵⁾를 소개했다.

이 核心領域의 構造는 후에 '人間'領域을 첨가시켜 6部門(6M's)의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表 1 참조).

이외에 또 하나의 圖書館·情報學의 教育 및 訓練을 위한 커리큘럼의 案內指針이 1980년 Uneso 에 의해 作成되었다.⁽³⁶⁾(表 2 참조)

위의 表 2도 表 1과 마찬가지로 圖書館·情報學의 특별한 專門教育이 아니라 여러 타일의 情報專門家間에게 共通으로 基盤이 되는 '基礎'教育領域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國際圖書館人聯盟(IFLA) 역시 그들의 專門教育에 있어서 세계 모든 國家에 通用될 수 있는 일정한 基準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IFLA가 圖書館學校를 위해 세운 基準은 일단 兩的 側面을 제외한 基本的인 原理와 條項을 진술한 것으로, 圖書館學教育의 國際標準化를 겨냥하고 있다.

本 基準이 제시하는 圖書館學教科課程은 方法論보다는 理論과 概念이 강조되어야 할 것과, 教科課程構造가 基本的인 主題에 대한 基礎(核心)과목과 專攻과목으로 분리되어 基礎과목이 專攻과목의 先修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함⁽³⁷⁾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IFLA가 圖書館學校의 全 學生들에게 필수적으로 教育되어야 한다고 밝힌 基礎(核心)과목은 다음과 같다.

1) 社會에 있어서 圖書館의 役割과 情報傳達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의 役割

(35) Havard-Williams, p. and Franz, E.G. op. cit., p.19.

(36) Saunders, W.L. "Guidelines for Curriculum Development in Information Studies," *Reports and bibliographies* Vol. 9, no.1, 1980. pp.1-26. 高山正也, 長田秀一, 等
"圖書館·情報學教育關係資料의 分析",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18, 1980. p.26에서 재인용.

(37)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圖書館學校의 基準)," 鄭在璇譯, *도서관*, no. 219, 1976, 4. p.26, 31.

26 도서관학논집

- 2) 書誌學概論 및 方法論
- 3) 圖書館資料組織論(目錄法, 分類法 等)
- 4) 參考奉仕論
- 5) 圖書 및 非圖書資料(特殊資料)의 選擇法, 募集法 및 利用法
- 6) 圖書館運營論
- 7) 圖書館史
- 8) 書誌學
- 9) 圖書館學研究方法論
- 10) 圖書館自動化論
- 11) 도큐멘테이션 및 情報科學論
- 12) 圖書館組織論⁽³⁸⁾

이상과 같이 IFLA가 ‘圖書館學校의 基準’을 통해 시사한 국제적 判斷은 상당히 광범위한 核心교과과정의 概念을 지지하고 있다.⁽³⁹⁾ 그밖에 自動化論이라든지 情報科學論과 같은 주제의 基礎領域에로의 滲入은 과거와 같은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境界區劃이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反映하고 있다.

그러나 이 ‘核心’은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변화와 改善이 미래의 情報要求와 가능한 未來 情報奉仕機關形態의 用語上으로 再照明, 再定義된 것이기 보다는 既存프로그램에 몇몇 情報學 關係科目이 附加된 形態에 더 가까울다.

V. 結 論

圖書館學이 가지는 一般的 領域, 즉 核心領域에 대한 관심은 圖書館學教育의 初創期에서부터 널리 認識되고, 또한 肯定되어온 概念이다. 그후, 뒤이

(38) Ibid., p. 31.

(39) Marco, Guy A. "Recent Adventures of the American Core Curriculum."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32, July 1978. p. 293.

어 據頭된 情報學 역시 그 나름대로의 核心領域의 糾明과 이에 대한 合意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圖書館學에 비해 비교적 多樣한 學科에서 제공되고 있는 情報學校教育은 自然히 相異한 次元에 觀點을 둔 教育을 실시하고 있고, 그러한 關點의 差異는 教育프로그램(教科課程)의 相異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의 核心領域(根本的 學問基礎), 역시 그 關點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점이 情報學의 核心領域糾明 및 合意에 가장 큰 障礙가 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努力에 병행해서 꾸준히 近求되어온 努力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圖書館學의 核心領域과 情報學의 核心領域이 함께 나누는 ‘共通核心’ 영역에 대한 探索이다. 위 課題에 대한 關心과 中要性은 圖書館學校에서 情報學教育을 흡수하는 傾向이 짙어지고 있는 1970년대 中엽을 起點으로 圖書館·情報學教育界에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밖에 컴퓨터工學과 通信工學의 價格底廉化로 인한 普及擴張은 날로 圖書館 및 諸般 情報專門職界의 作業環境差를 좁혀 나감에 따라 이 共通核心 개념의 妥當性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共通核心영역에 대한 探索은 아직까지 幻兒期에 불과하다. 本研究에서 論及된 여러 主張案은 全一的인 持支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領域과 領域, 혹은 토픽과 토픽내의 細部的인 要目과 實技의 경우 實技道具(機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重複, 漏落, 혹은 皮相的인 教育의 위험이 있고, 또한 特定領域 및 그 領域內의 小主題들에 대한 教育의 範圍와 깊이의 程度에 대한 指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未完의 상태이다.

한편 IFLA의 核心을 圖書館·情報學을 위한 진정한 共通核心領域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情報學 關係 및 科目을 덧 붙인 것에 불과하고, Unesco의 2개 案의 提示는 바로 같은 機關에서도 서로 상이한 體系를 發表할 만큼 이 共通領域 및 그 體系에 대한 研究가 아직도 初階의 段階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結論的으로, 圖書館·情報學의 ‘共通核心’ 영역의 보다 명확한 糾明과 이 영역의 教育을 위한 실라브스의 構築은 아래와 같은 理由에서 오늘날 우리 教育界 및 專門人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課題인 동시에 또한 責任인 것이다.

1. 圖書館·情報學의 基本 概念 및 原理의 發見을 돕는다.

2. 共通核心교육 후의 專門化 教育이 보다 넓은 범위로 뻗어 나가고, 깊이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基盤의 役割을 한다.

3. 圖書館學 및 情報學의 教育機關(大學校의 學科, 혹은 獨立學校)을 統合하는 機會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이들 專門職사이에 보다 효율적인 意思疏通채널을 제공한다.

Common Core Area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ong, Young-Sun

〈Abstract〉

The professional duties of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involve a generalized body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the so-called, 'common core') which is applicable worldwide without regard to national boundaries, levels of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or cultural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an attempt to validate and support this common core concept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f its important role in the sound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oth as a learned subject and as a profession.

Following an initial overview of generally agreed upon core area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anifold social changes rapidly being effected by computer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focus shifts to the proliferation of academic homes for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ore areas in information science. Of note he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cience as a broadly accepted social science discipline and the evolving core curriculum in library schools. To this regard the fact that the popularization of computer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increasingly blurring the

once-sharp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librarian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naturally favors common core concept. Major figur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uch as Shera, Saracevic and Foskette support this concept and have already identified its theoretical infrastructure. Finally, UNESCO and IFLA are also stressing the common core curriculu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oth as guidelines for the Third World and as a means to achieve universally accepted academic standards.

In conclusion, the search for a comprehensive common core curriculu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s still in the elementary stages. The task of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this common core is among the most crucial responsibilities facing today's educators and professionals for the successful elaboration of a common core would enable us to attain three highly desirable professional goals:

- 1) To determine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2) To serve as the base for further professional education and specialized research.
- 3) To offer enhanced opportunities for integrate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programs by providing a genuine two-way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s.